



한국시리즈 준비에 분주한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6일 오후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수비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다.

/최혜민기자 choi@kwangju.co.kr

# KIA 10일부터 전원 합숙 돌입

## 한국시리즈 대비 6일부터 훈련

'V10'에 도전하는 KIA 타이거즈의 훈련 일정이 확정됐다. 전력을 가다듬기 위해 추석 연휴를 반납했던 KIA가 5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6일부터 훈련을 재개했다.

오는 9일까지 4일간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단은 10일 오후 신양파크호텔에서 합숙에 들어가 'V10'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된다. 경기 감각 조율을 위한 청백전도 준비됐다. KIA는 8일 오후 6시와 11일 오후 2시 야

간 및 주간 경기에 대비해 자체 청백전을 치르게 된다. 선수단의 일과는 오전 10시30분 특타조의 훈련으로 시작되며 오후 1시30분부터 선수단 전체 훈련이 진행된다. 훈련은 매일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합평에 '전남야구타운' 추진

## KBS 천하무적 야구단 촬영 계기 전남야구장 인근에 내년말 완공

KBS 천하무적 야구단이 최근 전남 합평의 '전남야구장'에서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남야구장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합평군은 전남야구장 옆에 추가로 야구장 1면과 편의시설을 건설하는 등 '전남야구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6일 합평군에 따르면 탤런트 오지호, 김성수, 김준 등과 가수 백지영, 티아라 등의 KBS 천하무적 야구단 출연진들은 지난달 28일 합평군 대동면 용성리에 있는 전남야구장에서 폭포 남해포세이돈 야구팀과 경기를 가졌다.

이들이 경기를 가진 2만3천㎡ 규모의 전남야구장은 인근 광주, 목포 등지에서 연중 7천여명의 사하인 야구인들이 주말마다 즐겨 찾고 있으며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2군의 연습경기와 훈련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합평=합평문화기자 hwang@

특히 최근 기아 타이거즈가 11년만에 정규경기 1위를 차지하며 한국시리즈 직행이 결정된 가운데 KIA 조범현 감독이 "부진한 선수들이 전남야구장에서 나비와 놀다 보면 좋은 타격을 보여줬다"며 합평의 "나비효과"를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합평군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합평을 야구 메카로 키우기 위해 전남야구장 옆에 20억원을 들여 정규 야구장 1면과 기타 편의 시설 등을 갖춘 전남야구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등을 거쳐 내년 2-3월께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현재 합평지역 사하인 야구단이 창단 준비 중이고 군청 내 직장인 야구단이 활발히 활동하는 등 지역 내 야구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야구 전문타운이 조성되면 각종 대형 유치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각종 특화된 스포츠 관광마케팅으로 스포츠 메카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얼짱 골퍼' 최나연 PO 시구

'얼짱' 프로골프 선수 최나연(22)이 8일 오후 6시 인천 문화극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두산 베어스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시구한다.



SK는 지난달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삼성월드챔피언십에서 생애 처음으로 우승한 최나연이 가을잔치 마운드에 오른다고 6일 발표했다. 최나연은 SK 텔레콤의 후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故 고미영의 꿈 내년으로...

## 김재수씨 만나푸르나 등정 실패

지난 7월 히말라야 낭파르브트(8천125m) 정상에서 내려오다 유명을 달리한 여성산악인 고미영 대장을 대신해 만나푸르나(8천91m) 등정에 나섰던 김재수(48·코요롱스포츠) 대장이 결국 정상 도전을 포기했다.

6일 후원업체인 코요롱스포츠에 따르면 김 대장은 7일 정상에 도전하는 대신 베이 스텀프를 떠나 네팔 카트만두로 출발한다. /연합뉴스

김 대장 일행은 내주 초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7일 한국을 떠난 김 대장은 지난달 초 베이 스텀프를 차린 뒤 만나푸르나 정상 도전을 준비했다. 그러나 처음 등정을 시도했던 지난달 25일 해발 6천m 부근인 캄프 2 인근에서 불의의 눈사태로 일행 중 한 명이 다치면서 베이 스텀프로 철수했다. 겨울에 만나푸르나를 오르는 것은 불가능해 김 대장이 만나푸르나에 오르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봄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SK 정근우-두산 김현수 진정한 '킬러'가리자

## 올 시즌 최다안타 라이벌...상대타율도 나란히 3할4푼대

공교롭게도 두 선수는 상대 투수와 승부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정근우는 두산 투수를 상대로 타율 0.342를 때렸고, 김현수는 SK 마운드에 타율 0.343으로 강했다. 정근우와 김현수는 팀 내 최고 타자인 동시에 '상대 킬러'인 셈이다.

특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비중이 더 커졌다. 크리스 니코스키(두산), 김광현, 송은범, 전병두(이상 SK) 등이 빠져 양팀 마운드의 높이가 낮아진 탓에 공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2008년 한국시리즈 우승 때는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2007년과 2008년 타율이 각각 0.160과 0.211에 그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명예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타격기적' 김현수는 이번 시즌 최다 안타(172개) 1위, 타점(104개) 2위, 타격 3위 등에 오른 등 현역 최고 타자로 군림하고 있다. 여기에 존플레이오프에서는 무려 0.538의 타율을 때렸고 1, 2차전에서 연속 경기 홈런을 날리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근우와 김현수는 지난 두 시즌 한국시리즈에서 부진했던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현수는 2년 동안 골육을 안긴 SK와 승부에 대해 "상대가 SK라고 해서 특별하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며 "올라온 팀과 승부를 펼칠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연합뉴스

올 시즌 프로야구 최다안타 부문 타이틀을 놓고 혈투를 벌였던 정근우(27·SK)와 김현수(21·두산)가 이번에는 '저격수'로 나서 경망한다. 플레이오프에서 실력을 겨룰 정근우와 김현수는 이번 시즌 규정 타석을 채운 팀 내 타자 중에서 가장 높은 타율을 작성했다. 각각 0.350과 0.357로 정교한 방망이 솜씨를 과시했다.

## '휴직 3개월째' 이세돌 10월 랭킹도 1위

휴직 3개월째 접어든 이세돌이 10월 랭킹에서도 여전히 1위를 고수했다. 이세돌 9단은 6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10월 프로기사 랭킹에서 9천574점을 얻어 2위 최철한 9단에 10점 앞섰다. 9월 GS칼텍스배에서 조한승 9단에, KBS바둑왕전에서 안조영 9단에 기권패한 이세돌은 31점 하락했으나 턱밑까지 추격하던 이창호 9단과 강동윤 9단의 동반 부진 덕분에 함께 1위를 지켜냈다. /연합뉴스

Table with 4 columns: Rank, Name, Points, Change. Shows top 10 players including Lee Sedol, Choi Cheolhan, and An Jooyou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SCITY. Title: '첨단OK공인중개사 김병준'. Contact: T.971-0150. Services include land, house, and commercial property sal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SCITY. Title: '금산공인중개사'. Contact: T.081-5888. Services include land, house, and commercial property sal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정심 正視 正行'. Title: '정심 正視 正行'. Contact: T.062-431-2834. Services include land, house, and commercial property sal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해령법률경매'. Title: '해령법률경매'. Contact: T.082-430-7117. Services include legal auctions and real estate services.